

기아 광주공장, '생산 전면중단'

차체 프레임 공급사 호원 노조 지난 16일 오전부터 공장 점거

기아 광주공장 오후부터 부품공급 차질로 생산라인 전면 스톱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단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강덕동 (주)호원 공장 경문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공장 내 점거 농성도 벌였다.

부품공급 협력사의 노사분쟁 여파로 기아 오토랜드(AutoLand)광주 생

산라인이 전면 멈춰서는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차체 프레임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인 호원에서 발생한 노사분쟁으로 이날 오전부터 부품공급이 중단돼 오후부터 광주 내방동 1·2·3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호원 노조는 '작업환경 개선' 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이날 오전 6시경부터 광주 광산구 공장 1개동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의 공장 점거로 인해 호원은 생산라인이 멈춰선 데 이어 부품 반출도 막힌 상황이다.

협력사 노사 분쟁에 불똥이 튕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재고 부품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가동했지만 오후부터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서 생산라인을 모두 멈춰 세웠다.

현재 하남에 소재한 버스, 군수차량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지만, 셀토스·쏘울·스포티지·봉고트럭을 생산하는 광주 1·2·3공장 생산라인은 2조(오후 3시50분)부터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날 협력사 노사분쟁으로 발생한 차종별 정확한 생산차질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아 광주사업장의 경우 차종별 생산 공정률에 따라 부품을 그때그때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1차 협력사인 호원 협력사 노조의 공장점거가 장기화 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호원의 경우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체에 쓰이는 차체 프레임을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라는 점에서 노조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현지 협력사들의 부품 공급 차질로 광주사업장을 비롯해 국내 공장 생산라인이 장기간 전체 멈춰서는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발 황사' 전남 동부권,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수도권·충남 등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에서 복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내려졌던 전남 동부권 지역에 미세먼지(PM10·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주의보가 해제됐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남 동부권 10개 시·군(순천·여수·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의 PM10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같은 시각 전남 동부권 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0µg/m³로, 해제 기준 농도인 100µg/m³ 미만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PM10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는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은 109µg/m³, 광주는 55µg/m³였다.

중국 내륙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랐다가 낮 시간대 바람이 불며 대기 정체 현상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황사는 17일 까지 이어지겠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노약자, 호흡기 기저 질환자 등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곡성군, 심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등록취소·과태료

전남 곡성군이 지역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곡성심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이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는 업소이다.

또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된다.

곡성군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의

심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곡성·양혜영 기자

'인면수심' 어린 의붓딸 성폭행 60대 계부 징역 8년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자택·차량 등지에서 의붓딸 B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 때 3차례나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B양에게 목욕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친모의 추궁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양을 안아줬다'는 등의 변명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뤄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 특히 A씨는 의붓딸과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이를 반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과수원에서 경운기 안전사고, 60대 사망

15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남구 이장동의 과수원에서 경운기를 후진하던 A(68)씨가 조향 장치와 철제 지주대 사이에 목이 끼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적재량이 없는 경운기 구동부를 이용해 토양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주대 사이 비좁은 공간에서 작업 중 신체가 끼인 뒤 미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해 난 사고로 추정,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 갯벌서 굴 캐던 80대 할머니 바다 빠져 숨져

16일 오전 7시45분께 전남 목포시 대양동 인근 바다 갯벌에서 굴을 캐던 A(83·여)씨가 바다에 빠졌다.

인근에 있던 지인이 목격하고 "A씨가 바닷물에 떠내려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이 25분여 만에 구조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갯벌에서 굴을 캐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낮 주점서 50대 자매 살상한 70대 남성, 검찰 송치

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언니를 숨지게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59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B(59·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동생 C(57·여)씨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숨지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뒤인 오후 2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검거됐다.

조사결과 그는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 됐지만 약물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으로 부터 B씨의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